

쌀값을 어쩔것인가

산더미 재고에 추수기 또 하락 예고

정부 매입 확대·가공식품 활성화 시급

전남지역 쌀 재고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 수확기 산지 쌀 가격마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 농가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정부의 쌀 매입량이 작년보다 줄게 돼 쌀 생산비 안정 등 현실적인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벼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 등으로 올해 쌀 생산량을 452만1천t~464만4천t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확량(484만t)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전남 쌀 생산량도 지난해 90만1천t에 비해 5% 가량 줄어든 85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은 이런 생산량 추정을 토대로 2009년산 쌀 한 가마(80kg)의 수확기 평균 가격을 14만9천 원~15만3

천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의 수확기 평균 가격 16만2천 원 보다 5.6~7.9% 하락한 것이다.

특히 전남은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재고량까지 많아 쌀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전남의 산지 쌀 판매가격은 지난달 20kg 들이 1포대에 3만6천15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7.6%나 하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올해 정부의 벼 매입량은 작년에 비해 3만t이 줄어든 37만t으로 예정돼 있어 농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쌀 수매량은 작년 9만4천t에서 9만1천t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전남 쌀 예상 생산량의 10% 정도에 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

해 농약과 비료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책과 함께 쌀 소비 촉진 정책 개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 지난 2년 동안 중단된 대북 쌀 지원 법제화와 해외 원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전남도는 올 추곡 수매량 확대와 쌀 재고 매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쌀 제분공장 건립에 필요한 국고지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쌀 막걸리, 쌀 과자, 쌀 라면, 쌀 빵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전남 쌀 수출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남재희 전남도 쌀 마케팅 담당은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급선무”라며 “밀 수입량이 연간 240만t에 달하고 있는 만큼 밀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쌀 가루를 만드는 제분공장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랑은 황금빛 물들어가는데...

추분(秋分)인 23일 화순군 이십곡리 다랑논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하고 있다. /위지람기자 jrvi@kwangju.co.kr

“이젠 문화전당 조속 건립 힘모으자”

박광태 시장 “범시민기구 구성, 콘텐츠 논의해야”

박광태 광주시장은 23일 옛 전남도청 별관을 일부 존치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것과 관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힘을 모아 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문화전당 완공시기가 예초 2012년에서 늦춰지게 될만큼 이제는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시민이 하나돼 지혜를 모아야 한

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10인 대책위 활동 시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범시민 기구를 구성해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무엇으로 채울지를 비롯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관 보존 방안과 관련, “부분 보존에 대한 방식은 ‘게이트인’의 정신을 살려, 형태나 디자인 등에 대한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형태는 터널이 아닌 ‘ㄷ’ 자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역민들의 힘을 모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관이 부분 보존되면 형태가 아름답지 않아 흉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는 세계인들에게 이 건물의 역사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돼 이들이 자연 가량을 순매수하며 ‘바이 코리아’ 행진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당초 정부는 원설계안 존중(철거)과 원형보존 등 2개 안을 들고 나왔으나 10인 대책위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회동 2시간여만에 부분보존으로 결정됐다”며 “결단을 내려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환율 1,100원대 하락

원·달러 환율이 1년여 만에 1,100원대로 하락했다. <관련기사 8면>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1,203.80원)보다 9.40원(0.78%) 내린 1,194.40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3.70원 내린 1,200.10원으로 출발해 곧바로 1,200원 대를 하향 돌파한 뒤 1,193.9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환율이 증가 기준 1,

1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0월 1일 1187.00원 이후 처음이다.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자금 유입 등이 환율을 끌어 내렸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석유와 금속 등 주요 상품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뉴욕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1천20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며 ‘바이 코리아’ 행진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환율의 향방은 글로벌 달러 흐름과 당국의 방어 의지에 달린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달러화 약세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롯데마트 쌀 저가판매...농민들 화났다

전남산 쌀 추석 미끼상품으로 팔아 “가격 하락 부채질” 불매운동 나서

롯데마트가 전남산 쌀을 미끼상품으로 저가에 판매하고 있는 데 대해 농민들이 크게 반발, 불매 운동에 나섰다.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롯데마트가 추석 미끼 상품으로 쌀을 저가 판매하면서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

혔다. 광주전남연맹은 “최저생산비가 4만5천원(20kg)에 달하는 햅쌀을 미끼상품으로 3만6천8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롯데마트가 돈 버는데만 급급해 농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쌀은 탐양 금성농협

이 올해 생산한 ‘햅쌀 한 공기’로 20kg 한 포대에 3만6천800원에 롯데마트 전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전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개별 점포 마 음대로 상품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본사에 호남지역에 있는 점포만이라도 해당 상품을 빼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축하합니다!! F1대회 지원법 제정!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F1대회 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제는 성안판이 남았습니다.

정부에서 F1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F1대회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F1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F1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F1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남도